

## 쿠기-친어의 시각에서 본 上古漢語의 咽頭音化假說\*

진위신\*\* · 이경철\*\*\*

### 〈차 례〉

1. 緒論
2. 上古漢語의 咽頭音化현상에 대하여
3. 쿠기-친어의 長短母音에 대하여
4. 上古漢語 咽頭音化의 形態的 기능에 대하여
5. 結論

### 【국문초록】

본고는 上古漢語의 咽頭音化을 중심으로 쿠기-친어의 長短母音과 上古漢語의 咽頭音化 음절 및 非咽頭音化 음절의 形態 기능을 비교함으로써 두 언어 간 形態論的 유사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

\* 이 논문은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2A01063017).

\*\* 주저자, 동국대학교(Seoul Campus) 일본학과 (음운론) 박사 수료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Seoul Campus) 일본학과 (음운론) 교수

으로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쿠키-친어의 長短母音과 上古漢語의 咽頭音化假說을 비교한 바 있으나, 주로 音韻的인 관점에서 통제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形態論的 관점에서 접근하였고, 쿠키-친어에서 短母音이 長母音으로 파생되는 形態 양식이 上古漢語 咽頭音化 음절의 파생 양식과 네 가지 유형에서 높은 일치율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네 가지 유형은 狀態動詞에서 動作動詞 파생, 名詞에서 名詞 파생, 動詞에서 名詞 파생, 그리고 名詞에서 動詞 파생을 포함한다. 또한 上古漢語에는 動作 또는 狀態의 결과를 파생시키는 다섯 번째 形態 유형이 존재하는데, 이는 上古漢語의 고유 파생형질(apomorphy)일 가능성이 있다. 본고는 기존 연구의 방법론과 결론을 보완하며, 쿠키-친어와 上古漢語가 形態論的으로 계통적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시사한다.

주제어: 상고한어, 쿠키-친어, 인두음화, 장단모음, 형태음운론

## 1. 緒論

中古漢語의 3等과 1·2·4等字(非3等字)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3等字가 \*-j-介音(또는 -i-)을 가지고 있고, 非3等字는 \*-j-介音이 없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초기 학자들은 3等字와 4等字가 모두 \*-j-介音を 포함하고 있고, 이 특성이 yod라고 불린다고 보았으며, 4等字의 yod 특성이 3等字보다 더 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有坂秀世(1979[1937-1939])<sup>1)</sup>가 4等字가 yod를 가지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한 이후로,

1) 有坂秀世, 「カルグレン氏の拗音説を評す」, 明世堂書店, 『国語音韻史の研究』,

학계는 3等字와 非3等字의 변별적 자질이 yod의 존재에 있다고 널리 받아들였다.

鄭張尚芳(1987)<sup>2)</sup>과 Старостин(Starostin 1989:325-329)<sup>3)</sup> 등 학자들이 上古漢語에서 3等字와 非3等字 간에 短母音과 長母音의 변별적 자질이 존재한다는 이론을 제시하면서, 학계는 3等字의 yod 특성이 本生的(Primarity)인 것인지 혹은 次生的(Secondarity)으로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 이론은 3等字의 음운적 특성에 대한 새로운 고찰과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潘悟雲(2000:141-153)<sup>4)</sup>도 鄭張尚芳의 長短母音을 변별적 자질로 인정하는 견해를 수용하였고,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長短母音假說이 널리 지지받기 시작하여 거의 주류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Norman(1994)<sup>5)</sup>은 이에 상반되는 가설인 咽頭音化假說을 제시했다. 이 가설에 따르면, 3等字는 일반적인 음절을 나타내며, 非3等字는 咽頭音化된 음절로 간주되어, 捲舌音 음절은 捲舌音化 음절로 본다. 즉 일반적·咽頭音化된·捲舌化된 음절의 대립 관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초기에는 이 가설이 학계에서 널리 주목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捲舌音化 음절에 3等字와 非3等字(2等字)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음절들 간의 변별적 특성이 상충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Baxter Sagart(2014:68-76)<sup>6)</sup>는 이를 수

1979[1937-1939], pp.319-349.

2) 鄭張尚芳, 「上古韻母系統和四等、介音、聲調的發源問題」, 溫州師範學院, 『溫州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4, 1987, pp.67-90.

3) Сергей А. Старостин, Реконструкция древнекитайской фонолог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Москва: Главная редакция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89.

4) 潘悟雲, 『漢語歷史音韻學』,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0.

5) Jerry Norman, "Pharyngealization in Early Chinese", American Oriental Society,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44(3), 1994, pp.397-408.

6) William H. Baxter · Laurent Sagart, *Old Chinese A new reconstr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2014.

정하여 捲舌音化 음절을 제거하고, 3等字는 일반적인 음절로, 非3等字는 咽頭音化된 음절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咽頭音化假說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다.

현재 학계에서는 咽頭音化假說에 대한 관심이 長短母音假說을 넘어섰으며, 초기에는 長短母音假說을 지지했던 潘悟雲(2014)<sup>7)</sup>조차도 咽頭音化假說을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咽頭音化假說은 특히 불경 문헌의 산스크리트어 대역자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長短母音假說이 직면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진위신·이경철은 이전의 두 편의 논문에서 咽頭音化假說을 다룬 바 있다. 첫 번째 논문(2022)<sup>8)</sup>은 咽頭音化假說에 대한 관련 증거를 보충했으며, 특히 上古漢語 및 中古漢語의 자료인 일본과 한국의 한자음 체계 및 중세 문헌에 나타난 咽頭音化 현상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두 번째 논문 (2023)<sup>9)</sup>은 比較語言學적 방법을 바탕으로 티베트-버마어(Tibeto-Burmese)와 몽멘어(Hmong-Mien)에서 上古漢語와의 동계어 또한 차용어를 비교 분석했으며, 특히 몽멘어에서 中古漢語의 見系 3等字와 非3等字의 聲母發音位置에서 차이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咽頭音化假說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새로운 증거 중 하나가 되었다.

진위신·이경철의 이전 두 편의 논문을 비롯한 학계의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音韻論的 관점에서 咽頭音化假說을 탐구해 왔다. 이들 연구에는 Baxter·Sagart(2016)<sup>10)</sup>의 논문에서 쿠키-친어(Kuki-Chin 티베트-버마어에 속함)를 통해 진행된 논증도 포함된다. 본

7) 潘悟雲, 「對3等來源的再認識」,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中國語文』363, 2014, pp.531-540.

8) 진위신·이경철, 「咽頭音化假說에 대해서」, 한국일본학회, 『日本學報』133집, 2022, pp.115-163.

9) 진위신·이경철, 「트랜스-히말라야어와 몽멘어의 시각에서 본 上古漢語의 咽頭音化假說」,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문화연구』77집, 2023, pp. 147-165.

10) 위의 논문.

연구 역시 쿠기-친어를 비교 대상으로 삼지만, 音韻論의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形態音韻論의 관점에서 접근하려 한다. 구체적으로는 쿠기-친어와 上古漢語의 3等 및 非3等 음절 간 形態的 대응 관계를 관찰하여, 上古漢語의 咽頭音化假說을 보다 다른 측면에서 심도 있게 논증하고자 한다.

## 2. 上古漢語 咽頭音化현상에 대하여

〈표 1〉 3等과 非3等の 대립 관계에 대한 재구 방안

	王 <i>hɿwang</i> [king]	皇 <i>hwang</i> [be august, stately]
Baxter	*wjang	*wang
鄭張尚芳	*gwaŋ	*gwaaŋ
Starostin	*whaŋ	*whāŋ
Baxter Sagart	*G <sup>wa</sup> ŋ	*[g] <sup>w</sup> aŋ
본고	*G <sup>wa</sup> aŋ	*G <sup>w</sup> <ſ>aŋ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학계에서는 3等字와 非3等字의 변별적 자질에 대해 두 가지 가설이 기존의 3等字가 yod 성질을 가진다는 견해를 대체하고 있다. 이 두 가설은 각각 長短母音假說과 咽頭音化假說이다. 위의 예시에서 필자는 3等字와 非3等字로 구성된 동계어 쌍과 다섯 가지의 서로 다른 학자의 재구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Baxter(1992)<sup>11)</sup>의 재구 방안으로, 3等字가 yod 성질을 가진다는 기존 견해를 따르고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각 鄭張尚芳(2003)<sup>12)</sup>과 Starostin(1989)<sup>13)</sup>의 長短母音

11) William H. Baxter,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1992.

12) 鄭張尚芳, 『上古音系』,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3.

假說을 따른 재구 방안이며,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각각 Baxter · Sagart(2014)<sup>14)</sup>와 필자(본고)의 재구 방안이다. 위의 예시를 통해 관찰할 수 있듯이, 長短母音假說과 咽頭音化假說은 서로 완전히 대립하는 견해가 아니다. 이 두 가설은 모두 yod假說에 비해 非3等字에 변별적 자질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즉 長短母音假說에서는 3等字가 短母音(일반음절)이고 非3等字가 長母音이며, 咽頭音化假說에서는 3等字가 일반 음절이고 非3等字가 咽頭音化 음절로 재구된다. 반면 yod 가설에서는 非3等字가 일반 음절로 간주되고 3等字에 \*-j-介音이 추가된다.

이 외에도 주목할 점은, 증거 해석에 있어서 長短母音假說과 咽頭音化假說은 대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咽頭音化假說은 長短母音假說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두 가설은 해석하는 증거에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표 2〉 세 가지 가설이 증거에 대한 해석력

	yod	長短母音假說	咽頭音化假說
1. 漢字音	×	○	○
2. 방언	×	○	○
3. 산스크리트어	×	×	○
4. 티베트-버마어	×	○	○
5. 몽멘어	×	×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증거에 대한 세 가지 서로 다른 해석 방법은 그 해석력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yod假說의 해석력이 가장 약하며, 漢字音, 방언, 산스크리트어

13) 위의 책.

14) William H. Baxter · Laurent Sagart, *Old Chinese A new reconstr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2014.

대역자료, 그리고 티베트-버마어와 몽멘어의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長短母音假說是 漢字音, 방언, 티베트-버마어의 증거를 설명하는 데 비교적 강한 해석력을 보이지만, 산스크리트어 대역자료와 몽멘어에 대한 해석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반면 咽頭音化假說是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증거를 보다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진위신·이경철 (2022, 2023)<sup>15)</sup>에서 자세히 논의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예시로 설명한다.

〈표 3〉 漢字音·방언에 관한 예시

漢字	MC	SK	SJG	SJK	粵語	普通話
風	<i>pjuwng</i>	phu ŋ 풍	puu フウ	pou ホウ	fung <sup>1</sup>	fēng
中	<i>trjuwng</i>	tju ŋ 똥	tsyuu チュウ	tyuu チュウ	zung <sup>1</sup>	zhōng
弓	<i>kjuwng</i>	ku ŋ 궁	kuu クウ	kyuu キュウ	gung <sup>1</sup>	gōng
終	<i>tsyuwng</i>	tʃjo ŋ 쥬	syu シュ	syuu シュウ	zung <sup>1</sup>	zhōng
雄	<i>hjuwng</i>	u ŋ 웅	u ウ	yuu ユウ	hung <sup>4</sup>	xióng
隆	<i>ljuwng</i>	rju ŋ 룽	ru ル	ryuu リュウ	lung <sup>4</sup>	lóng
戎	<i>nyuwng</i>	zju ŋ 슝	nyuu ニユウ	zyuu ジユウ	jung <sup>4</sup>	róng

15) 위의 논문.

위의 표에 따르면, 표에 포함된 漢字는 모두 東韻 3等(juwng) d에 속한다. 韓國漢字音(SK)과 日本吳音(SJG)을 관찰해 보면, 모든 3等字가 반드시 yod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일정한 경향이 있는데, 齒莖音 聲母를 가진 漢字(中·終·隆·戎)는 yod를 반영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齒莖音 聲母가 아닌 漢字(風·弓·雄)는 yod를 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위의 표에서 吳音의 隆(ljuwng)이 yod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러한 경향에 부합한다. 그러나 日本漢音(SJK)에서는 이 현상이 깨지는데, 표를 살펴보면 風(pjuwng)을 제외한 다른 3等字는 모두 yod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표를 통해서 보면 현대 방언에서도 모든 3等字가 yod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無 \*ma → mju → wú는 하나의 3等字로서, 韓國漢字音에서는 mu(무), 日本吳音에서는 mu(ム), 산스크리트어 대역자료에서는 mo<sup>16)</sup>, 표준어(普通話)에서는 wú, 粵語에서는 mou<sup>4</sup>로 나타난다. yod假說에 따르면, 3等字는 \*-j-介音を 가져야 하지만, 위의 모든 자료에서는 3等字가 반드시 \*-j-介音を 포함해야 한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長短母音假說과 咽頭音化假說是 3等字의 yod가 次生的으로 발생했다는 관점을 통해 앞서 언급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齒莖音 聲母를 가진 漢字의 yod가 齒莖音 聲母를 가지지 않는 漢字의 yod보다 이르게 형성되었다는 현상 또한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長短母音假說是 산스크리트어 대역자료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산스크리트어에서는 長短母音의 대립이 존재하므로, 이 가설에 따르면 산스크리트어의 長母音은 上古漢語의 長母音에, 短母音은 上古漢語의 短母音에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16) 예를 들어 「南無」가 산스크리트어의 namo에 대응한다.



산스크리트어의 短母音이 上古漢語의 上聲과 명확하게 대응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Mei Tsu-Lin([2000]1970)<sup>17)</sup>의 연구에 따르면, 『文殊問經』과 『瑜伽金剛頂經釋字母品』에서 「上」과 「引去」가 각각 산스크리트어의 短母音과 長母音을 표기하고 있으며, 『智廣悉曇字記』에서는 「上聲短呼」가 산스크리트어의 短母音을 나타낸다. 또한 『慧琳一切經音義』와 『空海悉曇字母釋義』에서는 「上聲」과 「去聲」이 각각 산스크리트어의 短母音과 長母音에 대응하고 있다. 이는 산스크리트어의 대역자료에서 中古漢語의 聲調 차이(上聲과 去聲)가 산스크리트어의 長短母音 차이와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며, 3等字와 非3等字의 구분과는 관련이 적다. 따라서 咽頭音化假說은 長短母音假說과 달리, 이러한 증거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표 4〉 몽멘어에서 반영하는 증거

等	중국어				몽멘어	
	漢字	OC	MC	Gloss	PHM	Gloss
I	光	*kʷfaŋ	<i>kwang</i>	light	*qwaŋ	light
II	假	*kʰraq	<i>kaeX</i>	borrow	*qaH	borrow
III	九	*kuq	<i>kjuwX</i>	nine	*gju	nine
	局	*ŋkʰ(r)ok	<i>gʲowk</i>	bent, curved	*ŋkʰok	crooked

위의 표에서 제시된 예시와 같이, 진위신·이경철(2023)<sup>18)</sup>에 따르면 몽멘어에서 咽頭音化假說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

17) Mei Tsu-Lin, “Tones and Prosody in Middle Chinese and the Origin of the Rising Tone”, 北京: 商務印書館, 『梅祖麟語言學論文集』, 2000[1970], pp.423-458.

18) 위의 논문.

한다. 漢語와 몽멘어의 관계어에서, 漢語의 見系 聲母에 속하는 漢字들, 즉 見母(*k*)·溪母(*kh*)·群母(*g*)에 속하는 漢字는 몽멘어에서 1等·2等·4等字는 口蓋垂音 및 聲門音인 \*q·\*qʰ·\*g·\*ɦ에 대응되며, 3等字는 몽멘어의 軟口蓋音 \*k·\*kʰ·\*g에 대응된다. 이는 咽頭音화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몽멘어는 口蓋垂音과 軟口蓋音의 대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漢語의 咽頭音化 軟口蓋音과 非咽頭音化 軟口蓋音의 구분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西夏語(Tangut 창어군에 속함)와 갈롱어(rGyarlong 앞과 같이 창어군에 속함)의 대응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서하어의 𐞪5890(ku) [loose, wide]은 자폭-갈롱어(Japhug)의 -ngu [loose]에 대응하고, 서하어의 𐞪3008(xja) [cover]는 자폭-갈롱어의 -fkaβ [cover]에 대응한다. 갈롱어 역시 口蓋垂音과 軟口蓋音의 대립을 가지기 때문에 西夏語와 갈롱어의 동계어에서 西夏語의 3等字는 갈롱어의 軟口蓋音에, 그 외의 等(1等과 2等)은 갈롱어의 口蓋垂音에 대응된다. 위의 대응 관계로 인해, 西夏語의 3等字와 非3等字의 변별적 자질을 설명할 때에도 咽頭音화와 매우 유사한 口蓋垂化假說이 사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Xun Gong 2020<sup>19</sup>) 및 진위신·이경철 2023<sup>20</sup>)을 참조). 한편 漢語와 몽멘어 간의 관계가 西夏語와 갈롱어 간의 관계와 본질적으로 동일한다. 그러나 이 증거에 대해서 咽頭音化假說은 현존 세 가지 가설 중에서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다.

19) Xun Gong, "Uvulars and uvularization in Tangut phonology", John Benjamins, *Language and Linguistics* 21(2), 2020, pp.175-212.

20) 위의 논문.

## 3. 쿠기-친어의 長短母音에 대하여

〈표 5〉 중국어와 미조어의 音韻的 대응 관계

중국어					미조어	
等	字	OC	MC	Gloss	미조어	Gloss
I	回	*gʷɣər	hwoj	go around	vəl	surround
	黑	*m̥fək	xok	black	mūk <sup>21)</sup>	dull, dim
	皤	*bʃar	ba	white	vār <sup>22)</sup>	white
III	眉	*mrər	mij	eyebrow	hmul <sup>23)</sup>	hair (body)
	熊	*gʷ(r)əm	hjuwng	bear	vom <sup>24)</sup>	bear
	中	*tru ŋ	trjuwng	center	čhū ŋ <sup>25)</sup>	middle

長短母音假說是 특히 티베트-버마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쿠기-친어(Kuki-Chin)에서 나온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위의 표에 제시된 예시는 Starostin(1989)<sup>26)</sup>의 연구에서 인용된 미조어(Mizo, 쿠기-친어에 속함) 예시로, 그는 제325-329쪽에서 미조어의 短母音을 가진 음절이 漢語와의 동계어와 대응할 때 漢語의 1·2·4等字보다 3等字와 더 많이 대응되며, 반대로 미조어의 長母音은 3等字와 거의 대응하지 않고, 대부분 漢語의 1·2·4等字와 대응된다. 위의 표에 나와 있는 예시는 이러한 대응 관계를 보

21) Старостин(1989:148).

22) Старостин(1989:146).

23) Старостин(1989:146).

24) Старостин(1989:158).

25) Старостин(1989:186).

26) 위의 책.

여주며, 이는 Starostin이 長短母音假說을 지지하는 주요 증거 중 하나가 되었다.

미조어는 쿠키-친어에 속하며, 이 어군은 주로 인도의 마니푸르(Manipur)주, 아삼(Assam)주, 미조람(Mizoram)주, 나갈랜드(Nagaland)주, 트리푸라(Tripura)주와 방글라데시의 치타공(Chittagong) 산악 지대, 미얀마의 라카인(Rakhine)주, 친(Chin)주, 그리고 마웨(Magway)도와 사가잉(Sagaing)도에 분포한다. 트랜스-히말라야어족(Trans-Himalayan)<sup>27)</sup> 내 티베트-버마어파의 일부로서, 두룽어(Delung, 능어군에 속함)의 長短母音 대립이 음절의 통합으로 발생한 次生的인 현상인 것(자세한 논의는 楊將領2000<sup>28)</sup>을 참조)과 달리, Mizo어의 長短母音 대립은 원시-쿠키-친어(Proto-Kuki-Chin)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VanBik(2009)<sup>29)</sup>의 연구에 따르면, 그는 원시 쿠키-친어에 대해 12개의 모음을 재구성하였는데, 여기에는 \*a · \*i · \*u · \*e · \*o 및 이들이 대응하는 長母音인 \*aa · \*ii · \*uu · \*ee · \*oo, 그리고 이중 모음 \*ia와 \*ua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다섯 쌍의 長短母音 대립이 존재한다. 비록 다른 티베트-버마어군에서는 長短母音 대립이 흔하지 않지만, 漢語 등 다른 언어와의 대응 관계를 고려할 때, 원시쿠키-친어와 漢語의 3等 및 非3等的 대립 관계는 트랜스-히말라야어(Trans-Himalayan)<sup>30)</sup>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더라도 동일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Matisoff(2003: 244-245)<sup>31)</sup>은 원시티베트-버마어(Proto Tibeto-

27) 별칭: 중국-티베트어족(Sino-Tibetan).

28) 楊將領, 「獨龍語의 長元音」, 中國社會科學院民族研究所, 『民族語文』2, 2000, pp.38-44.

29) Kenneth VanBik, *Proto-Kuki-Chin: A Reconstructed Ancestor of the Kuki-Chin Language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09.

30) 별칭: 원시-중국-티베트어(Proto-Sino-Tibetan).

31) James A. Matisoff, *Handbook of Proto-Tibeto-Burman: System and*

Burmese)에서 長短母音 대립의 관계로 재구했다. Matisoff의 설명에 따르면, 그가 원시티베트-버마어에 長短母音 대립을 재구한 이유는 주로 미조어를 포함한 쿠기-친어에서 長短母音 대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쿠기-친어와 다른 티베트-버마어의 비교를 통해 다른 티베트-버마어에서는 長短母音 대립이 합류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고전티베트어(Written Tibetan)의 mag-pa [son-in-law]는 미조어의 ma : k-pa [son-in-law]에, 고전티베트어의 \*me [fire]는 Mizo어의 mey [fire]에 대응된다. 그러나 원시티베트-버마어의 長短母音 대립이 다른 티베트-버마어에서도 일정한 보상 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난다는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원시티베트-버마어의 \*it과 \*i : t는 미조어의 it과 i : t에 대응되지만, 고전버마어(Written Burmese)에서는 \*it이 ac로, \*i : t이 it으로 변화한다(Matisoff 2003: 348-351 참조<sup>32)</sup>).

또한 보도-가로어(Bodo-Garo)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조어의 tap(捲舌音화된 형태) ← \*krap [cry]는 가로어의 grap [cry]와 보도어의 gap [cry]에 대응되며, 미조어의 ka : p [shoot]는 가로어의 go [shoot]와 보도어의 gau [shoot]에 대응된다(Benedict 1972:71 참조<sup>33)</sup>). 미조어의 ap과 a : p은 보도-가로어에서 각각 ap과 o에 대응되는데, 이 예시는 a : p → au로의 변화를 거쳐 o로 다시 변화한 것을 보여준다. 반면 短母音은 이러한 변화 과정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比較語言學的 차이를 통해, 長短母音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 티베트-버마어에서도 長短母音의 대립의 존재했었던 흔적을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Philosophy of Sino-Tibetan Reconstruction*, Berkeley · Los Angeles ·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2003.

32) 위의 책.

33) Paul K. Benedict, *Sino-Tibetan: A Conspectu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1972.

Baxter · Sagart(2016)<sup>34)</sup>의 연구에서는 원시티베트-버마어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다. 그들은 \*CV-와 \*CViʃVi-의 두 가지 음절 유형을 재구성했다. 첫 번째는 일반 음절(normal syllable)에 속하고, 두 번째는 동일한 모음(geminate vowel) 두 개 사이에 咽頭摩擦音(pharyngeal fricative)이 삽입된 咽頭音化 음절이다. 이들은 미조어에서 \*CViʃVi- 음절의 咽頭摩擦音 \*ʃ가 탈락한 후 \*CViVi- 음절이 長母音으로 변화하고, \*CV- 음절은 短母音으로 변화하여 長短母音의 대립이 형성되었다고 가설을 세웠다. 또한 上古漢語에서는 \*CViʃVi- 음절의 咽頭摩擦音 \*ʃ가 聲母의 咽頭音化를 일으켜 \*CʃV-형 음절로 변하여 1·2·4等字에 대응되고, \*CV- 음절은 3等字에 대응하여 咽頭音化의 대립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위신 · 이경철(2022, 2023)<sup>35)</sup>은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설명 방식을 제안했는데, \*CV-와 \*CʃV-형 음절가설을 채택했다. 이 가설에 따르면, \*CʃV-형 음절은 咽頭介音 \*-ʃ-를 가진 음절로, \*CV-형 음절과 대립한다. 咽頭摩擦音 \*-ʃ-는 모음과 비슷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쿠키-친어에서 咽頭摩擦音 \*-ʃ-가 주모음에 흡수되어 \*CʃV- → CV:- 음절로 변화했으며, 漢語에서는 聲母의 咽頭音化가 발생했다고 가정한다. 겉으로 보면 이 두 가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진위신 · 이경철의 가설은 Baxter · Sagart의 가설에 비해 咽頭音化 표지를 \*-ʃ-와 같은 介音으로 나타내는 방식이 形態論的 해석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다. 이를 트랜스-히말라야어족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s- 接頭辭와 비교해 보면, 학계는 이미 上古漢語와 티베트-버마어의 形態에 대해 상당한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

34) 위의 논문.

35) 위의 논문.

를 들어, 고전티베트어의 *snam-pa* [smell (v.t.)]와 *mnan-pa* [smell, smell of (v.i.)], 징포어의 *\*šəprüt* [boil (v.t.)]와 *\*prüt* [boil (v.i.)], 그리고 갈룽어의 *sur-ndza* [feed]와 *ndza* [eat]와 같은 예시는 티베트-버마어에서 *\*s-* 接頭辭가 使役 기능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이 가설은 Conrady(1896:41-45)<sup>36)</sup>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이후 Benedict(1972:105-109)<sup>37)</sup>과 Matisoff(2003:99-104)<sup>38)</sup> 등의 학자들에 의해 널리 받아들여졌다.

쿠기-친어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들에서는 *\*s-* 接頭辭가 이미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有氣音化된 聲母로 변화함을 통해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하카-라이어(Hakha-Lai, 쿠기-친어에 속함)에서 *tʰaʔ* [snap (v.i.)]와 *\*tʰaʔ* [snap (v.t.)]의 관계가 그 예이다(VanBik 2009:167-168 참조<sup>39)</sup>). 티베트-버마어와 마찬가지로, 上古漢語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食 *\*s-lək-s* → *ziH* → *sì* [feed]와 食 *\*m-lək* → *zyik* → *shí* [eat]의 대조(上古漢語의 *\*s-* 接頭辭에 대하여 Sagart · Baxter 2012 참조<sup>40)</sup>)는 쿠기-친어처럼 上古漢語의 *\*s-* 接頭辭 역시 재구를 통해서만 복원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s-* 接頭辭의 논의는 歷史比較語言學에서 자매어 간의 동계어를 통해 자매어들의 기원인 조어를 추적하는 방법에 국한되지 않고, 形態論的 비교 또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즉 필자

36) August Conrady, *Eine Indochinesische Causativ-Denominativ-Bildung und ihr Zusammenhang mit den Tonaccenten*, Leipzig: Otto Harrassowitz, 1896.

37) 위의 책.

38) 위의 책.

39) 위의 책.

40) Laurent Sagart · William H. Baxter, "Reconstructing the *\*s-* Prefix in Old Chinese", John Benjamins, *Language and Linguistics* 13(1), 2012, pp.29-59.

는 다른 연구와 다르게, \*s-接頭辭를 연구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쿠키-친어의 長短母音의 대립과 上古漢語의 咽頭音化 대립의 形態的 구성 방식이 유사한지를 통해 이들 간의 發生學的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학계에서는 쿠키-친어의 長短母音 대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원시 티베트-버마어의 재구에 사용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티베트-버마어에서는 本生的인 長短母音 대립이 소멸되었거나 다른 형태에서 변해 온 次生的인 長短母音 대립관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쿠키-친어의 長短母音이 어떠한 形態的 기능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현재 필자는 VanBik(2009:323-325)<sup>41)</sup>의 연구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발견하였다. 해당 연구는 하카-라이어와 쿠미어(Khumi, 앞과 같이 쿠키-친어에 속함)에서 長短母音의 形態的 관계를 다루었으며, 그가 수집한 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원문은 形態論的인 연구보다는 音韻論的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들 언어에서 長短母音이 어떠한 形態的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만 언급했을 뿐,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VanBik이 제공한 예시들을 분석하여 하카-라이어와 쿠미어에서 長短母音의 대립이 形態的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하고, 이를 上古漢語와 비교할 것이다. 아래 두 개의 표는 각각 하카-라이어와 쿠미어에서 長短母音 대립이 나타나는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다.

---

41) 위의 책.



〈표 6〉 Hakha-Lai어의 長短母音의 形態 기능

순서	短母音	Gloss	長母音	Gloss
2a	kêw-I kew?-II	sprout	kêew-I kew?-II	open
2b	tôŋ-I tôn?-II	meet, contact	toôŋ-I toŋ?-II	touch, contact
2c	kân-I kân?-II	dry (as pond), roast (as peanuts)	kâaŋ-I kaŋ?-II	burn (v.i.)
2d	kîr-I kîr-II	be curly ("returned hair")	kîir-I kîir-II	return
2e	khat	one	ŋâl khaat vâal khaat	loner boar (male) loner bachelor

위의 표는 하카-라이어에서 長短母音 대립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2a · 2b · 2c · 2d에 나오는 단어쌍에서는 動詞의 의미변화가 발생한다. 2a의 단어쌍에서는 短母音 형태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動作이나 狀態를 나타내며, 長母音 형태는 외부적 행동이나 작용을 나타낸다. 이는 短母音 형태가 주로 狀態的이거나 自發的 動詞인 반면, 長母音 형태는 더 動作的이거나 使役動詞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2c에서 이러한 현상은 특히 두드러지며, 短母音 형태는 狀態的으로 나타내고, 長母音 형태는 動作的으로 나타낸다. 또한 2c의 예시를 통해 長母音이 使役動詞로 해석되기보다는 動作動詞로 해석되는 것이 더 적절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2d에서 短母音 형태는 狀態的으로 나타내며, 예를 들어 「말리다 (be curly)」는 외부 힘의 개입 없이 자연스러운 상태, 즉 自發的인 상태를 표현한다. 반면 長母音 형태의 「돌아오다 (return)」는 의도적인 행동을 포함한 動作的인 과정을 나타내며, 특정 상태나 장소에서 돌아오는 동작의 진행과 완성을 강조한다.

이전의 예시들과 달리, 2e는 名詞 간의 변환을 다루고 있어, 長短母音의 변화가 動詞뿐만 아니라 名詞 범주에서도 적용된다는 것

을 보여준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시를 통해 長短母音의 대립에서 의미의 派生關係가 短母音에서 長母音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표 7〉 Khumi어의 長短母音의 形態 기능

순서	短母音	Gloss	長母音	Gloss
3a	ahaymg (v.i.)	be thirsty, thirst for	k'haayng (n.)	thirst
3b	láng (v.i.)	dance	kaláang (n.)	dance
3c	tháw (n.)	fat, oil, omentum	tháaw (v.i.)	be fat, oily, greasy

위 표는 쿠미어에서 長短母音 대립을 이루는 3쌍의 동계어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로 自動詞와 名詞의 교체 관계를 다룬다. 3a와 3b에서는 短母音 형태가 自動詞인 반면, 長母音 형태는 이에 대응하는 名詞이다. 반대로 3c에서는 短母音 형태가 名詞이고, 長母音 형태가 이에 대응하는 自動詞이다.

하카-라이어와 쿠미어의 예시를 종합해 보면, 쿠키-친어에서 長短母音 대립의 주요한 形態的 기능은 주로 品詞의 변환, 특히 動詞와 名詞 간의 상호 변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長短母音의 변화는 動詞와 動詞, 名詞와 名詞 간의 派生關係에도 적용된다. 하카-라이어에서는 動詞와 動詞 간의 변환이 특히 두드러지는데, 短母音 형태는 주로 狀態動詞인 반면, 長母音 형태는 動作動詞의 특성을 지닌다.

필자는 이러한 결론을 후속 논의에서 다룰 上古漢語의 3等字와 非3等字 사이의 形態的 관계와 비교하여, 두 언어 간의 形態的 관계가 音韻的 관계처럼 發生學的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 4. 上古漢語 咽頭音化의 形態的 기능에 대하여

上古漢語의 3等字와 非3等字의 音韻關係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으나, 그 形態的 기능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특히 長短母音과 咽頭音化 가설을 제기한 학자들은 주로 音韻의 분석에 중점을 두고 形態論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부족하다. 그러나 Sagart는 초기 연구에서 \**-j-*介音を 도입하여 3等字와 非3等字를 구별하고, 1993년의 두 편 논문(Sagart 1993a<sup>42)</sup>, 1993b<sup>43)</sup>)에서 形態的 기능과 관련된 주제를 언급한 바 있다.

王 *hwang* [king]과 皇 *hwang* [be august, stately], 納 *nop* [bring or send in]과 入 *nyip* [enter]를 예로 들면, Sagart는 초기 연구에서 \**-j-*介音を 3等字와 非3等字를 변별하는 자질로 채택하면서, 3等字는 非3等字를 기반으로 \**<j>*接中辭를 추가하여 파생된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 예들에서 전자의 \**<j>*接中辭는 의미 속성을 나타내는 사람, 사물, 장소 또는 도구와 관련된 名詞를 파생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 \**<j>*接中辭는 動詞의 主語가 행위의 발동자에서 행위의 수용자로 변환되는 動詞 표지로 정의된다.

Sagart는 上古漢語의 \**<j>*接中辭와 南島語의 *<in>*接中辭를 비교하면서, 南島語에서 *<in>*接中辭는 名詞化 기능뿐만 아니라 動詞의 수용자 주어를 표지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사이시아

42) Laurent Sagart, "Chinese and Austronesian: Evidence for a genetic relationship",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21(1), 1993a, pp.1-63.

43) Laurent Sagart, "Old Chinese and Proto-Austronesian", University of Hawai'i, Honolulu, *Conference on Asia-Mainland/Austronesian Connections (CAMAC)*, 1993b, pp.1-32.

트어(Saisiyat, 남도어족의 포모사어파에 속함)의 karat [to write]와 k<in>arat [book, paper]에서는 <in>接中辭가 名詞化작용을 하며, 이는 漢語의 王 *hwang* [king]과 皇 *hwang* [be august, stately]에 해당된다. 또 다른 예로, 다야크어(Dayak, 남도어족의 말레이폴리네시아어파에 속함)의 kan [eat]과 k<in>an [eaten]에서는 <in>接中辭가 動詞의 수용자를 표지하며, 이는 漢語의 納 *nop* [bring or send in]과 入 *nyip* [enter]에 대응된다.

그러나 만약 咽頭音化(長短母音を 포함)假說을 채택할 경우, 形態的 변화 경로는 역전되어 3等字에서 非3等字가 파생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따라서 Sagart가 南島語와의 비교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게 된다. 실제로 Sagart 본인은 Sagart(1999:42-43)<sup>44)</sup>에서 \*-j-介音假說을 포기하면서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長短母音假說과 Baxter-Sagart가 제안한 \*CV- 및 \*CViʔVi-假說, 그리고 진위신·이경철의 \*-ʃ-介音假說을 비교해 보면, 전자의 두 가설은 形態的 설명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하나의 音素를 接中辭로 설명하기 어렵다. 반면 진위신·이경철의 假說은 \*(<ʃ>)接中辭를 가정하여 形態 설명을 훨씬 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다. 파생 경로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설명 방향은 Sagart의 초기가설과는 반대되며, 그의 추론을 직접적으로 계승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agart가 정리한 자료를 기반으로 재분석이 가능하다.

아래의 <표 8>부터 <표 11>에서 제시하는 대부분의 예시는 Sagart의 논문에서 정리된 것이며, 일부는 필자가 확장한 것이다.

44) Laurent Sagart, *The Roots of Old Chinese*,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99.

〈표 8〉 狀態動詞에서 動作動詞로 파생하는 \*〈ʕ〉接中辭

순서	漢字	OC	MC	Gloss
4a	入	*nup	<i>nyip</i>	enter
	納	*n〈ʕ〉up	<i>nop</i>	bring or send in
4b	圍	*g <sup>w</sup> ər	<i>hjuwʔj</i>	surround
	迴	*g <sup>w</sup> 〈ʕ〉ər	<i>hwoj</i>	go around
4c	攙	*mal	<i>mje</i>	to smash
	磨	*m〈ʕ〉al	<i>ma</i>	rub, grind
4d	深	*ləm	<i>syim</i>	deep
	探	*l〈ʕ〉əm	<i>thom</i>	to explore, search out

위의 표에는 4쌍의 어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어휘들은 中古漢語에서 3等과 非3等の 대립 관계를 나타내고, 동시에 上古漢語에서는 \*-ʕ-介音의 유무에 따른 대립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4a와 4d의 경우, 納 \*n〈ʕ〉up → *nop* [bring or send in]과 探 \*l〈ʕ〉əm → *thom* [to explore, search out]의 의미는 명확하게 행동주체가 목적을 가진 동작을 수행하는 것을 요구하며, 이는 動作動詞나 他動詞, 혹은 使役動詞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入 \*nup → *nyip* [enter]의 의미는 명확한 목적이 없는 동작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狀態動詞나 自動詞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또한 深 \*ləm → *syim* [deep]을 추가로 관찰하면, 그 品詞의 특성 때문에 自動詞보다는 狀態動詞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따라서 위의 4개의 예시를 통해 \*〈ʕ〉接中辭가 狀態動詞에서 動作動詞로 파생하는 形態的 기능을 가진다고 정리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하카-라이어의 形態的 기능과 비교한 결과, 漢語와 하카-라이어의 形態的 기능은 높은 일관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a를 예로 들면, 漢語의 入 \*nup → *nyip* [enter]과 納 \*n〈ʕ〉up → *nop* [bring or send in]의 관계는 하카-라이어의 *kêw*-I, *kewʔ*-II [sprout]와 *kêw*-I, *kewʔ*-II [open]의 관계와

비교할 수 있다. 漢語의 非咽頭音化 음절은 하카-라이어의 短母音 음절과 동일하게 狀態動詞에 속하며, 漢語의 咽頭音化 음절은 하카-라이어의 長母音 음절과 유사하게 모두 動作動詞에 해당한다.

다른 한편으로, 4d의 예를 들어보면, 漢語의 深 \*l̥əm → *syim* [deep]과 探 \*l̥ʰəm → *thom* [to explore, search out]의 관계는 하카-라이어의 kán-I, kánʔ-II [dry (as pond), roast (as peanuts)]와 kǎaŋ-I, kaŋʔ-II [burn (v.i.)]의 관계와 비교할 수 있다. 漢語의 非咽頭音化 음절은 본질적으로 形態의 특성을 가지며, 이는 하카-라이어의 短母音 음절과 유사하다. 두 경우 모두 形容詞의 속성을 나타낸다. 이에 대응하는 長母音 형태는 漢語와 하카-라이어에서 모두 動作動詞로 더 경향을 나타낸다.

〈표 9〉 名詞에서 名詞로 파생하는 \*〈ʎ〉接中辭

순서	漢字	OC	MC	Gloss
5a	葉	*lep	<i>yep</i>	leaf
	牒	*l̥ʰ<ʎ>ep	<i>dep</i>	writing tablet
5b	社	*m-tʰa	<i>dzyaeX</i>	sacrifice to the spirit of the soil
	土	*tʰ<ʎ>a-q	<i>thuX</i>	land, soil
	土	*m-tʰ<ʎ>a	<i>duX</i>	landowner
5c	君	*kur	<i>kjun</i>	lord; ruler
	昆	*k<ʎ>ur	<i>kwon</i>	elder brother
5d	基	*kə	<i>ki</i>	base (n.)
	菱	*k<ʎ>ə	<i>koj</i>	roots

위의 표에는 中古漢語에서 3等과 非3等の 대응 관계를 이루는 4쌍의 아휘가 수록되어 있으며, 上古漢語에서는 \*-ʎ-介音의 유무에 따른 대립 관계를 보여준다. 5a의 예를 보면, 漢語의 葉 \*lep → *yep* [leaf]과 牒 \*l̥ʰ<ʎ>ep → *dep* [writing table]의 관계는 名詞에서 의미적으로 연관된 또 다른 名詞가 파생되는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관계는 하카-라이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카-라이어의 khat [one]과 ŋ l khaat [loner boar (male)], vŋal khaat [loner bachelor]의 관계와 비교할 수 있다.

〈표 9〉 動詞에서 名詞로 파생하는 \*〈ŋ〉接中辭

순서	漢字	OC	MC	Gloss
6a	遄	*dor	<i>dzjwen</i>	be quick, be hurrying
	湍	*tʰ<ŋ>or	<i>thwan</i>	rushing water
6b	葉	*lep	<i>yep</i>	thin
	牒	*l<ŋ>ep	<i>dep</i>	writing tablet
6c	亡	*ma ŋ	<i>mjang</i>	flee; disappear; die
	荒	*ŋ<ŋ>a ŋ	<i>xwang</i>	wasteland; uncultivated land
6d	終	*tu ŋ	<i>tsyuwng</i>	end
	冬	*t<ŋ>u ŋ	<i>towng</i>	winter
7a	如	*na	<i>nyo</i>	follow
	奴	*n<ŋ>a	<i>nu</i>	slave
7b	攘	*na ŋ	<i>nyang</i>	steal
	囊	*n<ŋ>a ŋ	<i>nang</i>	sack, bag
7c	聚	*dzoq	<i>dzjuX</i>	bring together
	族	*dz<ŋ>ok	<i>dzuwk</i>	clan

위의 표에는 中古漢語에서 3等과 非3等の 대응 관계를 이루는 7쌍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으며, 上古漢語에서는 \*-ŋ-介音의 유무에 따른 대립관계를 보여준다. 6a와 7b의 예를 보면, 咽頭音化 음절인 湍 \*tʰ<ŋ>or → *thwan* [be quick, be hurrying]과 囊 \*n<ŋ>a ŋ → *nang* [sack, bag]은 名詞로, 파생 이전의 語根과 의미적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두 語根의 品詞는 약간 다르다. 6a의 遄 \*dor → *dzjwen* [be quick, be hurrying]는 形容詞, 혹은 狀態動詞로 볼 수 있으며, 7b의 攘 \*na ŋ → *nyang* [steal]은 명확한 목적

을 가진 動作動詞이다.

이러한 유사한 파생 관계는 쿠미어에서도 대응된다. 예를 들어 쿠미어의 *láng* [dance (v.i.)]와 *kaláang* [dance (n.)]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0〉 名詞에서 動詞로 파생하는 \*〈ʕ〉接中辭

순서	漢字	OC	MC	Gloss
8a	王	* <i>ɣ<sup>w</sup>aŋ</i>	<i>wjaŋ</i>	king
	皇	* <i>ɣ<sup>w</sup>〈ʕ〉aŋ</i>	<i>hwang</i>	be august, stately
8b	兒	* <i>ŋe</i>	<i>nye</i>	child
	倪	* <i>ŋ〈ʕ〉e</i>	<i>ngej</i>	young and weak
8c	窖	* <i>qəms</i>	<i>ʼimH</i>	underground chamber
	暗	* <i>q〈ʕ〉əms</i>	<i>ʼomH</i>	dark
8d	房	* <i>baŋ</i>	<i>bjaŋ</i>	side-room
	傍	* <i>b〈ʕ〉aŋ</i>	<i>bang</i>	close to
9a	名	* <i>meŋ</i>	<i>mjeng</i>	name
	銘	* <i>m〈ʕ〉eŋ</i>	<i>meng</i>	inscribe
9b	氣	* <i>k<sup>h</sup>əts</i>	<i>khj+ɟH</i>	vapour, odour, steam, gas
	慨	* <i>k<sup>h</sup>〈ʕ〉əts</i>	<i>khøjH</i>	sigh
9c	嗑	* <i>qik</i>	<i>ʼiek</i>	throat
	搯	* <i>q〈ʕ〉(r)ik</i>	<i>ʼeak</i>	grasp
9d	蒸	* <i>təŋ</i>	<i>tsyŋ</i>	twigs as firewood
	登	* <i>t〈ʕ〉əŋ</i>	<i>tong</i>	ascend
9e	倫	* <i>lun</i>	<i>lwin</i>	principle
	論	* <i>l〈ʕ〉un</i>	<i>lwon</i>	to discuss

위의 표에는 中古漢語에서 3等과 非3等の 대응 관계를 이루는 9쌍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으며, 上古漢語에서는 \*-ʕ-介音의 유무에 따른 대립 관계를 보여준다. 8b와 9a의 예를 보면, 어근 兒 \**ŋe* → *nye* [child]와 名 \**meŋ* → *mjeng* [name]은 모두 名詞이



다. 이에 대응하는 파생형식은 動詞로 나타나며, 표 9의 상황과 유사하게 파생된 동사는 크게 狀態動詞(形容詞)와 動作動詞로 나눌 수 있다. 8b의 파생형식인 倪 \*ŋ<ʃ>e → *ngej* [young and weak]는 狀態動詞(形容詞)에 속하며, 9a의 파생형식인 銘 \*m<ʃ>eŋ → *meng* [inscribe]는 動作動詞에 속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쿠미어에서 長短母音은 名詞와 動詞 사이의 파생 관계를 가지며, 短母音이 動詞, 長母音이 名詞로 나타나는 예시뿐만 아니라, 쿠미어에는 短母音이 名詞이고 장모음이 동사인 예시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쿠미어의 *tháw* [fat, oil, omentum (n.)]와 *tháaw* [be fat, oily, greasy (v.i.)]의 관계가 그러하다. 이러한 현상은 漢語와도 일치하며, 漢語에서도 非咽頭音化 음절이 動詞이고, 咽頭音化 음절이 名詞인 파생 관계뿐만 아니라 非咽頭音化 음절이 名詞이고 咽頭音化 음절이 動詞인 파생관계도 존재한다.

〈표 11〉 動作 또한 狀態의 결과를 파생하는 \*<ʃ>接中辭

순서	漢字	OC	MC	Gloss
10a	滅	*met	<i>mjiet</i>	destroy
	蔑	*m<ʃ>et	<i>met</i>	not have
10b	省	*seŋq	<i>sjengX</i>	inspect
	醒	*s<ʃ>eŋq	<i>sengX</i>	wake up
10c	集	*dzəp	<i>dzip</i>	gather, collect
	雜	*dz<ʃ>əp	<i>dzop</i>	mixed
10d	灼	*tewk	<i>tsyak</i>	burn
	的	*t<ʃ>ewk	<i>tek</i>	white, bright
10e	奄	*ʔomq	<i>ʃemX</i>	cover
	晦	*ʔ<ʃ>omq	<i>ʔomX</i>	dark
11a	清	*tsʰeŋ	<i>tshjeng</i>	clear (adj.)
	青	*tsʰ<ʃ>eŋ	<i>tsheng</i>	green or blue

위의 표에는 中古漢語에서 3等과 非3等の 대응 관계를 이루는 6쌍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으며, 上古漢語에서는 \*-<ɣ>-介音의 유무에 따른 대립 관계를 보여준다. 10a의 예를 들면 非咽頭音化 음절인 滅 \*met → *mjiet* [destroy]는 動作動詞로, 그 의미에 포함된 동작은 명확한 목적성을 가진다. 반면 파생된 咽頭音化 음절인 蔑 \*m<ɣ>et → *met* [not have]의 의미는 명확한 목적성을 가지지 않으며, 狀態動詞에 속한다. 10b에서 10e까지도 이와 유사한 현상을 보여준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러한 파생 관계는 4a에서 4d의 狀態動詞에서 動作動詞로 파생되는 관계와 정반대에 속한다. 주목할 점은 쿠키-친어에서는 狀態動詞에서 動作動詞로 파생되는 예시만 존재하며, 그 반대의 파생 예시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 11a를 통해 살펴보면, 이러한 관계를 動作動詞에서 狀態動詞로 파생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11a의 非咽頭音化 음절인 淸 \*tsʰeŋ → *tshjeng* [clear (adj.)]는 본질적으로 이미 狀態動詞(形容詞)이다. 필자가 10a에서 10e를 11a와 결합한 이유는, 이 둘의 파생 관계가 모두 語根의 결과를 파생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다. 즉 蔑 \*m<ɣ>et → *met* [not have]는 狀態動詞로서 滅 \*met → *mjiet* [destroy]라는 동작의 결과이며, 靑 \*tsʰ<ɣ>eŋ → *tsheng* [green or blue]는 狀態動詞(形容詞)로서 색깔을 나타내며, 淸 \*tsʰeŋ → *tshjeng* [clear (adj.)]라는 狀態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자는 표에 있는 예시들을 \*-<ɣ>-介音を 통해 동작 또는 상태의 결과를 파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 5. 結論

본 논문은 주로 上古漢語의 咽頭音化假說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Baxter · Sagart(2016)<sup>45)</sup>와 유사하게 쿠키-친어의 長短母音과 上古漢語의 咽頭音化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연구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기존의 연구는 音韻論의 관점에서 동계어 비교 연구를 통해 분석을 진행한 반면, 본고는 形態論의 관점에서 두 언어 간의 유사성을 탐구하였다. 연구방법은 다르지만 두 연구의 결론은 일치하며, 쿠키-친어의 長短母音 대립 관계와 上古漢語의 咽頭音化 및 非咽頭音化의 대립관계 사이에 일정한 發生學的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연구는 논증방법에서 상호 보완적 성격을 가진다.

자세히 하자면, 본 논문은 쿠키-친어와 上古漢語의 형태적 관계를 비교한 결과, 쿠키-친어에서의 長短母音의 形態的 기능과 上古漢語의 咽頭音化 및 非咽頭音化 음절의 形態的 기능이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쿠키-친어에서는 短母音에서 長母音으로 파생되는 形態的 관계가 네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狀態動詞에서 動作動詞 파생, 名詞에서 名詞 파생, 動詞에서 名詞 파생, 名詞에서 動詞 파생이다. 上古漢語에서는 非咽頭音化 음절에서 咽頭音化 음절로 파생되는 形態的 양식이 다섯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狀態動詞에서 動作動詞 파생, 名詞에서 名詞 파생, 動詞(動作動詞 및 狀態動詞 포함)에서 名詞 파생, 名詞에서 動詞 파생(動作動詞 및 狀態動詞 포함), 그리고 동작 또는 상태의 결과를 파생이다. 첫 네 가지 形態的 양식은 쿠키-친어와 上古漢語의 공유 파생형질(synapomorphy)에 해당하며, 다섯 번째 유형은 上古漢語어의 고유파생형질(apomorphy)일 가능성이 있다.

---

45) 위의 논문.

## 參考文獻

- 진위신 · 이경철, 「咽頭音化假說에 대해서」, 한국일본학회, 『日本學報』 133집, 2022, pp.115-163.
- 진위신 · 이경철, 「트랜스-히말라야어와 몽멘어의 시각에서 본 上古漢語의 咽頭音化假說」,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문화연구』 77집, 2023, pp.147-165.
- 潘悟雲, 『漢語歷史音韻學』,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0.
- 潘悟雲, 「對3等來源的再認識」,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中國語文』 363, 2014, pp.531-540.
- 楊將領, 「獨龍語의 長元音」, 中國社會科學院民族研究所, 『民族語文』 2, 2000, pp.38-44.
- 鄭張尚芳, 「上古韻母系統和四等、介音、聲調的發源問題」, 溫州師範學院, 『溫州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4, 1987, pp.67-90.
- 鄭張尚芳, 『上古音系』,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3.
- 有坂秀世, 「カルグレン氏の拗音説を評す」, 明世堂書店, 『国語音韻史の研究』, 1979[1937-1939], pp.319-349.
- August Conrady, *Eine Indochinesische Causativ-Denominativ-Bildung und ihr Zusammenhang mit den Tonaccenten*, Leipzig: Otto Harrassowitz, 1896.
- James A. Matisoff, *Handbook of Proto-Tibeto-Burman: System and Philosophy of Sino-Tibetan Reconstruction*, Berkeley · Los Angeles ·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2003.
- Jerry Norman, "Pharyngealization in Early Chinese", American Oriental Society,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44(3), 1994, pp.397-408.
- Kenneth VanBik, *Proto-Kuki-Chin: A Reconstructed Ancestor of the Kuki-Chin Language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09.
- Laurent Sagart, "Chinese and Austronesian: Evidence for a genetic relationship",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21(1), 1993a, pp.1-63.
- Laurent Sagart, "Old Chinese and Proto-Austronesian", University of Hawai'i, Honolulu, *Conference on Asia-Mainland/Austronesian*

- Connections(CAMAC)*, 1993b, pp.1-32.
- Laurent Sagart · William H. Baxter, “Reconstructing the \*s- Prefix in Old Chinese”, John Benjamins, *Language and Linguistics* 13(1), 2012, pp.29-59.
- Laurent Sagart, *The Roots of Old Chinese*,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99.
- Mei Tsu-Lin, “Tones and Prosody in Middle Chinese and the Origin of the Rising Tone”, 北京: 商務印書館, 『梅祖麟語言學論文集』, 2000 [1970], pp.423-458.
- Paul K. Benedict, *Sino-Tibetan: A Conspectu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1972.
- William H. Baxter,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1992.
- William H. Baxter · Laurent Sagart, *Old Chinese A new reconstr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2014.
- William H. Baxter · Laurent Sagart, “A Hypothesis on the Origin of Old Chinese Pharyngealization”, Brill, *Bulletin of Chinese Linguistics* 9, 2016, pp.179-189.
- Xung Gong, “Uvulars and uvularization in Tangut phonology”, John Benjamins, *Language and Linguistics* 21(2), 2020, pp.175-212.
- Сергей А. Старостин, *Реконструкция древнекитайской фонолог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Москва: Главная редакция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89.

(투고일: 2024. 10. 12 심사완료일: 2024. 12. 20 게재확정일: 2024. 12. 23)

진위신 · 이경철  
소 속: 동국대학교 일본학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전자우편: yoohsinchen@dgu.ac.kr · kanzi22@empas.com

[Abstract]

## Re-examining the Pharyngealization Hypothesis of Old Chinese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Kuki-Chin Languages

Chen, Yu-Xin · Lee, Kyong-Chul

This study focuses on the hypothesis of pharyngealization in Old Chinese and aims to explore the morphological similarities between the long and short vowel distinctions in Kuki-Chin languages and the derivational functions of pharyngealized versus non-pharyngealized syllables in Old Chinese. Existing research has also compared the long-short vowel distinctions in Kuki-Chin languages with the hypothesis of pharyngealization in Old Chinese, but such studies primarily approach the topic from a phonological perspective, emphasizing comparative analysis of cognates. This paper, however, takes a morphological approach and finds that the derivational patterns in Kuki-Chin languages, where short vowels derive long vowels, align closely with the derivational patterns of pharyngealized syllables in Old Chinese in four key types: deriving action verbs from stative verbs, deriving nouns from nouns, deriving nouns from verbs, and deriving verbs from nouns. Additionally, Old Chinese exhibits a fifth type of derivation, in which results of actions or states are derived, which may represent an apomorphy unique to Old Chinese. This study complements existing research in both methods and conclusions, further suggesting a possible phylogenetic link between Kuki-Chin languages and Old Chinese in terms of morphology.

Key words: Old Chinese, Kuki-Chin, Pharyngealization, Long and Short Vowels, Morphophonology